

성명	남지원	수험기간	2023.03~2025.07.
학교	건국대학교	전공	산업디자인학과
키워드	기득 상표고득점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62기 변리사 남지원입니다.

약 2년 4개월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수험생활을 보내고서 망설임 끝에 합격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기 전 고민했던 것은 삶에 있어 저보다 공부와 가깝게 지내오셨을 여러분께 제 경험이 과연 도움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동차 시절 6월 중순에 공부를 내려놓았었고, 수험기간을 통틀어서도 하루 공부 시간이 8시간을 넘기지 않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겐 오히려 제 글에서 유용한 팁 내지 희망을 얻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자 적습니다.

특히 저는 자연과학 베이스가 없는 상태로 1차 시험을 치렀고, 1차 법과목의 경우 문제풀이 속도가 빠른 편(보통은 20~30분 정도 남기고 마킹을 끝냈습니다.)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고민이 있으시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2차 시험의 경우에는 기득에 들어서 가독성과 상표 점수를 많이 개선하여 아래 답안지 일부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차 공부

민법	산업재산권법	자연과학개론
87.5점	97.5점	60점

-민법- <점수: 87.5점>

【강의 및 교재】

수강한 강의

기본강의, 최종정리강의

사용 교재

기본서, 변리사시험 10개년 기출문제집

【시기별 공부】

3~4월	5~9월	10월	11~12월	1~2월
기본강의 수강	X (9월 1일자 학원 모의고사 42.5점)	기본서 1회독 (10월 28일자 학원 모의고사 70점)	기본서 1회독 기출문제집 1회독 최종정리강의 수강 (12월 8일자 학원 모의고사 100점)	기본서 1회독 7개년 기출풀이 구술스터디

【회독 방법】

기본서 회독방법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단권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첫 회독 때에는 회독기간을 한 달로 잡고 강의노트에 필기한 내용 등을 모두 기본서에 옮겨가며 천천히 회독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회독 속도를 위해 넘어가면 나중에 꼭 그 부분이 발목을 붙잡았으므로, 잘 모르겠거나 헷갈리는 부분은 이해가 될 때까지 보고 넘어갔습니다.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기출문제집을 함께 응용하여 단권화를 마치시면 기본서 회독 속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기출문제집 회독방법

저는 타 시험 기출이 섞이지 않은 변리사 10개년 기출문제집, 즉 400제만 풀었습니다. 제가 쓴 문제집은 400개의 문제를 진도별로 나누어 1번부터 400번까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 처음 볼 땐 홀수 번호, 그 다음엔 짝수 번호로 나누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짝수 번호 문제를 풀고 답을 확인할 때까지 홀수 차례에 표기해둔 문제를 다시 보았습니다. (표기 방법은 아래에)
2. 평일에 하루 20문제씩만 풀었습니다. 이때 문제지에 답을 체크하지 않고, 따로 노트에 풀면서 5개의 지문 중 1개라도 헷갈리는 지문이 있으면 무조건 표기해두었습니다.
3. 헷갈렸거나 틀린 문제는 문제집 풀이를 보고, 풀이에 자세한 내용이 없으면 기본서에서 찾아서 읽고, 기본서에 없는 판례면 기본서에 적어두었습니다.
4. 볼 때마다 새롭고 안 외워지는 개념, 판례 등은 포스트잇에 적어서 책상에 붙여놓고 틈틈이 봤습니다.

표기방법

- 헷갈렸는데 맞은 문제: 문제집 문제번호 위에 1을 쓰고 그 위에 Δ표시(1은 1회독째라는 의미)
- 틀린 문제: 위와 마찬가지로 몇 회독째인지 숫자를 쓴 뒤 X표시

【7개년 기출풀이 및 구술스터디】

당시 모 학원의 독서실을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와 함께 1월 중순부터 시험 2주 전까지 7개년 기출풀이 및 구술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기출풀이의 경우 아침 8시에 학원 휴게실에서 만나 문제풀이 후 서로 채점하고 모르는 문제를 물어봤으며, 그 이후 학원 최종정리 자료를 활용하여 서로에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구술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산업재산권법- <점수: 97.5점>

【강의 및 교재】

수강한 강의

과목별 기본강의, 최종정리강의 + 상표의 경우 판례강의 추가 수강

사용 교재

과목별 기본서, 변리사시험 20개년 기출문제집

【특허법】

기본서 3회독, 기출문제집 1회독, 6개년 기출풀이

회독, 공부 방법은 민법 파트에서 적어둔 방식과 동일합니다.

【상표법】

기본서 2회독, 기출문제집 1회독, 6개년 기출풀이

회독, 공부 방법은 민법 파트에서 적어둔 방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상표법의 경우 처음 기본강의를 듣고나서도 도저히 기출문제집을 풀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판례강의를 별도로 추가 수강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기본서 1회독, 기출문제집 1회독, 6개년 기출풀이

회독, 공부 방법은 민법 파트에서 적어둔 방식과 동일합니다.

【산업재산권법 조문정리】

너무 무식한 방법이지만 2월 초에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조문집을 모두 띄워놓고 세 법의 비슷하지만 다른 절차, 공통되는 절차 등의 조문과 함께 PCT, 마드리드, 헤이그를 비교하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시험에 임박해 자료를 만드는 것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리해두니 시험 직전에 국제출원 파트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자료를 만들고 싶다면 적어도 12월 전까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연과학개론- <점수: 60점>

【강의 및 교재】

수강한 강의

과목별 기본강의, 최종정리 강의 + 화학 유기이성질체 특강, 생물 분자생물학실험 특강

(다만, 지구과학은 기본강의를 듣지 못했습니다.)

사용 교재

과목별 기본서, 최종정리 자료

【물리】2/10

기본서 1회독

주요 공식 정리

기출 10개년 풀이 + 오답노트

자연과학 베이스가 있는 분들에게 익숙한 기본 공식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낯설었기 때문에, 기본강의를 듣고서도 계속 잊혀지는 주요 공식들을 별도로 정리하는 시간을 12월에 가졌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긴 했으나 필요한 작업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연과학 노베이스인 분들은 물리, 화학에 시간을 과투자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하는 시간 대비 고점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학】3/10

기본서 1회독

기출 10개년 풀이

화학 역시 물리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강의는 듣되 시간을 과하게 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럴 시간에 법과목과 생물, 지구 과학에 좀 더 시간을 들여 보다 확실한 결과를 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화학은 기출문제를 풀 때 별도로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생물】10/10

기본서 1회독

기출 10개년 풀이 + 오답노트

생물도 어렵게 나오는 해에는 관련 전공자들도 틀리는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암기 과목인 만큼 제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해 생물 암기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기본서를 1회독 하면서 함께 외우느라 시간을 다른 자연과학에 비해 더 투자했고, 기출풀이를 하며 헛갈렸거나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에 모두 꼼꼼하게 필기했습니다. 특히 강사님께서도 강조하시고 기출문제에 빈출되는 파트들이 있는데, 모두 기본서에 마킹해두고 시험 전날에는 그 부분 암기 체크를 더 신경 썼습니다.

【지구과학】9/10

기본서 1회독

기출 10개년 풀이 + 오답노트

지구과학 역시 암기과목인 만큼 노베이스인 분들은 물리, 화학보다 이쪽에 더 신경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물리, 화학의 기본강의 진도가 너무 더져서 지구과학의 경우 기본강의를 듣지 않고 기본서를 천천히 읽으며 모두 암기했는데, 가능하면 기본강의는 꼭 들으시는 게 효율 측면에서나 이해 측면에서나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늦게나마 최종 정리강의를 수강했고, 해당 강의에서 정리해준 내용과 기출문제를 통한 오답노트를 시험 전날에 다시 보았습니다.

【자연과학 노베이스인 분들께】

같은 자연과학 노베이스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편차가 있으니 어느 것이 정답이라 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제가 1차 시험을 보던 해에는 물리, 화학이 어렵고 생물, 지구과학이 상대적으로 쉬웠기에, 언제나 제 공부방법이 통용되는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리, 화학을 아예 놓아버리는 건 저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잘 되지 않는 물리, 화학에 시간을 너무 들이느라 법과목 및 생물, 지구과학 암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시간 관리】

저는 하루 평균 공부시간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공부 기복이 꽤 있는 편이라 어떤 날은 공부시간이 12시간까지도 하고, 어떤 날은 4시간에 못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지키고자 한 게 있다면 기상 시간과 독서실 출석입니다. 저는 1차 시험 진입 당시 공부 습관이 제대로 들여져있지 않는 스스로를 믿지 못해 아예 모 학원의 종합반을 등록하여 매일 9시까지

독서실로 출석했습니다. 집이 꽤 거리가 있었기에 1차 수험기간 동안에는 평일 아침 6시 반에 기상하고, 대신 주말에 9시쯤 일어나 동네 스터디카페를 갔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시간대를 택하되 기상 시간을 항상성 있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력 관리】

저는 별도로 운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독서실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몸이 빠근할 때 한 번씩 나가서 10분씩 산책했습니다.

【문제풀이 방법】

객관식 문제풀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

1. 마킹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대신, **한 페이지 단위로 문풀+마킹을 반복**했습니다. 이 경우 번호를 밀려쓸 위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최악의 경우에도 마킹시간을 빼두지 못해 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후 답이 바뀌더라도 수정테이프로 수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지문을 1번부터 보지 않고, 전반적으로 훑어본 다음 **익숙한 판례 지문 > 짧은 지문 > 긴 지문** 순으로 읽습니다. 그 중간에 답이 나오면 다른 지문을 읽지 않고 넘어갑니다. 대신 어느 정도 정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지문을 전부 읽지 않고 마킹한 문제는 문제번호에 **□표시**를 해두고 남은 시간에 다시 봅니다.
3. 두세 개의 지문 중 헛갈리는 지문이 있으면 붙잡고 있지 말고, 우선 하나로 찍은 다음 **△표시**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4. 아예 답을 모르겠는 문제의 경우 **★표시**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5. 법 과목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1번부터 40번까지 풀고 나면 적게는 20분에서 많게는 30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에 **★표시>△표시>□표시** 순으로 다시 풀어봅니다.

2차 공부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51.66점	53점	62.66점	67점

-민사소송법- <점수: 51.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이창한 강사님 수업만 들었습니다.

동차: 기본강의, 기초GS, 실전GS A, 실전GS B

기득: 심화강의, 실전GS A, 실전GS B

▪ 교재

이창한 강사님 통합민사소송법, 사례집, 기출문제해נד북

【수강한 GS】 (스터디 포함)

24년 11월 ~25년 1월	25년 4월	25년 5월	25년 6월
심화강의 사례집 스터디	실전GS A 사례집 스터디	사례집 스터디	실전GS B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3~4월에 기본강의와 사례강의를 듣고, 5월에 기초GS를 실강으로 들으며 실전GS A를 온라인첨삭으로 추가 수강했습니다. 이후 6월에 실전GS B를 수강했으나 부끄럽게도 동차 기간 말미에 ‘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빠져 공부를 내려놓았습니다.

▪ 기득 기간

민사소송법이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이었는데, 그럴수록 기본기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창한 강사님의 수업 외에 다른 자료는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강사님이 더 옳다의 문제라기보다는, 한 강사님의 기본서, GS 자료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로 다른 자료를 보는 게 저에게는 성향상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반은 간다’는 마음으로 통합민사소송법, 동차 때 들었던 기초GS 자료와 기득까지의 실전GS 자료를 반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회독 방법】

통합민사소송법, 사례집 회독

두 책을 진도를 함께 맞추어 회독했습니다. 본래 이해를 먼저 해야 암기가 따라오는 성향이어서 회독수를 크게 늘리는 대신 천천히 꼼꼼하게 책을 읽었습니다. 이때 통합과 사례집에서 겹치는 판례가 있는 경우 옆번호 또는 페이지 위쪽에 적어두어 기본서에서의 주소 설정과 사례풀이 목차를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GS 자료 회독

GS자료 회독도 미리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의 경우 GS시즌이 다 끝나고서야 6월 말부터 자료를 다시 회독했습니다. 특히 문제를 읽고 논점이 바로 파악되지 않는 문제들을 따로 정리해두었다가 회독이 끝나고 다시 목차를 잡아보는 방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암기 방법】

암기자료를 따로 쓰진 않았고, 사례집 스터디를 하며 목차와 안에 내용(학설 이름과 판례의 입장 등)을 암기했습니다. 시험이 다가오면서는 GS자료를 보면서 암기를 가속화했습니다.

-특허법- <점수: 53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박형준 변리사님 수업만 들었습니다.

동차: 기초GS+, 실전GS B, 탑텐&최신판례강의

기득: 기본강의, 판례강의, 사례강의, 도약GS, 실전GS A, 실전GS B, 탑텐&최신판례강의

▪ 교재

박형준 변리사님 준특허법, 준특허판례집, 준특허사례집

【수강한 GS】

24년 9~11월	24년 12월 ~25년 2월	25년 3월	25년 4~5월	25년 6월
기본강의 판례강의 사례강의	기출 스테디 도약GS	실전GS A	기출 스테디	실전GS B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3~4월에 기초GS+를 듣고, 5~6월에 실전GS B를 수강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동차 기간 말미에 ‘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빠져 공부를 내려놓았습니다.

▪ 기득 기간

동차 합격발표가 나기 전부터 먼저 학원을 다니며 기본강의, 판례강의, 사례강의를 실강으로 수강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때 판례에 대한 이해도가 선명해졌고, 이후 기출 스테디, 도약GS로 쓰기감을 올리면서 실력이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전GS 시즌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가 나와 특허에 대한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덜었습니다.

【회독 방법】

준특허법 기본서 회독

마찬가지로 회독수를 늘리는 대신 이해가 될 때까지 천천히 읽었습니다. 베이직 노트 부분은 변리사님께서 기본강의 때 짚어 주신 부분만 한 번씩 읽어보고, 그 외에는 생략하거나 흥미로워 보이는 부분만 발체독을 하였는데 판례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준특허법 판례집, 사례집 회독

판례집, 사례집의 경우 오로지 발체독만 했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혹은 기본서를 읽다가 필요한 부분만 따로 찾아서 읽었습니다.

GS 자료 회독

GS자료 회독도 미리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의 경우 GS시즌이 다 끝나고서야 6월 말부터 자료를 다시 회독했습니다. 특히 문제를 읽고 논점이 바로 파악되지 않는 문제들을 따로 정리해두었다가 회독이 끝나고 다시 목차를 잡아보는 방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암기 방법】

총알 암기집 활용

저는 동차뿐 아니라 기득 때도 총알 암기집으로 암기했습니다. 총알에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느낄 때는 판례를 찍어서 덧 붙이는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해 강의 쉬는 시간이나 지하철 등에서 틈틈이 암기했습니다. 저는 두문자파가 아니어서 암기 현 출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논점 누락이 적은 편이어서, 주요 키워드 위주로 암기했다가 판례의 문장과 문장이 이어 지는 맥락을 생각해 현출하는 방식이 잘 맞았습니다.

탐텐&최신판례강의 자료 활용

시험 전날에는 탐텐&최신판례강의 자료만 보며 제가 중요도에 비해 암기 현출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최대한 메웠습니다.

-상표법-

<점수: 62.66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한경훈 변리사님 수업만 들었습니다.

동차: 기초GS+, 실전GS B

기득: 기본강의, 판례강의, 도약GS. 실전GS A, 실전GS B, 최신판례강의

▪ 교재

한경훈 변리사님 데생 점, 선, 면, 피날레, 암기자료

【수강한 GS】

24년 9월 ~25년 1월	25년 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판례 스테디 기출 스테디	도약GS	기본강의 실전GS A	판례강의 기출 스테디	실전GS B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3~4월에 기초GS+를 듣고, 5~6월에 실전GS B를 수강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동차 기간 말미에 '난 안 될 것 같다' 는 생각에 빠져 공부를 내려놓았습니다.

▪ 기득 기간

동차 합격발표 전부터 판례 스터디를 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주요 판례를 구술로 말하는 스터디였는데, 함께한 스터디원님이 저보다 공부를 더 먼저 시작해 고압계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기출 스터디와 도약GS**까지 들으며 실전GS에 앞서 상표에서 부족했던 감을 메우고 기본기를 다시 다졌습니다. 3월부터는 한경훈 변리사님의 기본강의를 인강으로 들으며 실전GS A를 수강했는데, **기본강의**에서도 판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상표법에 대한 해상도를 대폭 높여주셨습니다. 4월에는 GS 강의가 없어 기출 스터디와 함께 **판례강의**를 인강으로 들었습니다. 이후 실전GS B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해서, 상표법을 주요 과목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독 방법】

데생 점 기본서 회독

기본강의를 들으며 변리사님께서 필기 및 표시해준 분들을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고, 전반적인 주소를 파악하며 회독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상표의 경우 기본서 회독만 계속 늘리기보다 판례에 대한 이해, 목차 잡기 연습이 중요하다고 느껴져 기본서는 1회독으로 마치고 이후에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했습니다.

데생 선, 면 회독

특허와 마찬가지로 발췌독을 하였지만 개중에서도 선(판례집)은 특허에 비해 자주 들춰보았습니다. 특히 **판례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사안포섭에 녹이면 좋을지** 설명해주신 것들을 유념하며 회독했고, 저도 GS에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했고, 덕분에 GS는 물론 실제 시험에서도 해당 부분에서 점수를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암기 방법】

암기집 활용

저는 동차뿐 아니라 기득 때도 한경훈 변리사님께서 배포하신 암기집으로 암기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암기가 필요한 판례는 거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외의 것이 나오면 남들도 잘 모를 거니까 순발력으로 대응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최신판례강의 자료 활용

시험 전날에는 최신판례강의 자료만 보며 제가 중요도에 비해 암기 현출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최대한 메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점수: 67점>

【강의 및 교재】

▪ 강의

동차: 김진주 변리사님 기초GS, 실전GS

기득: 김웅 변리사님 실전GS

▪ 교재

동차: 김진주 변리사님 기본서, 암기자료

기득: 김웅 변리사님 GS 자료

【수강한 GS】

25년 1~2월	25년 3월	25년 4월	25년 5월
X	X	X	실전GS

【시기별 공부】

▪ 동차 기간

5월에 김진주 변리사님의 기초GS를 듣고, 6월에 실전GS를 수강했습니다. 기본서 회독은 1회로 끝내고 나머지는 기본서를 회독하며 정리해둔 암기집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때 암기집을 꼼꼼이 정리해둔 덕인지 동차 말미에 공부를 내려놓았음에도 디자인보호법 점수는 69점으로 고득점이었습니다.

▪ 기득 기간

5월에 실전GS를 수강했습니다. 그 전까지 동차 이후로 디자인보호법 공부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강하게 되었는데, 김웅 변리사님의 실전GS를 듣고 나눠주신 강의 자료로 공부했습니다. 중요한 논점과 판례들을 선별해서 설명해주시고 자료도 중요도를 모두 표시해두신 덕에 기득 기간에는 추가 강의나 자료 없이 실전GS 자료와 동차 때의 자료만 가지고 공부해도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회독 방법】

동차 때 정리해둔 암기집에 더해 김웅 변리사님 실전GS 강의자료만 2번 정도 회독했습니다.

【암기 방법】

마찬가지로 동차 때 정리해둔 암기집과 기득 때 실전GS 강의자료, 그리고 김웅 변리사님께서 추가로 올려주신 개정된 심사 기준만 일주일에 1일, 1~2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 보았습니다.

-답안지-

【실제 시험에서의 답안】

답안 분량		한 줄 내 글자수	목차 간 엔터	글자 크기
민사소송법	18페이지	약 25자	1. 목차 사이 엔터 1줄	세로 폭의 2/3 정도
특허법	18페이지		2. 설문 사이 엔터 2줄	
상표법	19페이지		3. 문제 사이 엔터 3줄(애	
디자인보호법	20페이지		매하면 페이지 바꿈)	

【글씨 및 가독성 노하우】

동차 불합격 후 답안지 열람을 갔다가, 가독성에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교수님께 무례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기 싫더군요. 글씨체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글자가 너무 컸고, 또한 띄어쓰기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척 보기에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여 글씨 크기를 세로 폭의 2/3으로 균일하게 맞추고, 자음을 눈에 띄게 쓰며 자간과 띄어쓰기 간격이 일정하도록 교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답안지 분량이 20페이지로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목차 사이에 엔터를 1줄씩 넣으

니 보기 좋았습니다. 그 후 기득 실전GS에서는 높은 가독성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예시로 동차 상표 실전GS B 답안과 기득 상표 실전GS A 답안을 아래 첨부합니다.

동차 상표 실전GS B 답안 일부

I. 심문 (1)
1. 크리크리 할 13호 의의 취미
주제에서 특정한 상표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며 ^{의의} 상표의 형·예시한 상표로 동일·예시한 상표에 부합한 목적으로 출원 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부합} 상표에 의의 상표에 대응하는 것은 부합하지 못하다.
2. J 크리의 상표 (2주)
(1) 선사용권자의 권리가 인정된 경우
(1) 선사용권 특정한 의의 취미 특정한 상표가 출원한 후에도 인정된 것은 인정되나 J 크리의 명칭 등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인위적 인, ^{인위적} 인 것은 출원한 후에도 인정된 것은 인정된 다. ^{인위적} 인 것은 인정된 것은 인정된 다.
(2) 영양 양자 함께 인정된 경우
선사용권자의 권리가 인정되어 영양 함께 인정된 고 하더라도, 두자가 그 상표 출원을 인식하는 데에 있어 출원한 경우 인정·인정된 출원인 인위적인, 이 권리 인정 권리 선사용권자의 선용 및 사용권 함께 인정할 수 있는 한다.

보시다시피 목차 사이에 엔터가 들어가지 않고, 자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날려 써서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정테이프를 쓰지 않아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줄을 긋고 다시 썼는데, 기득에 들어서며 이 부분도 수정테이프를 써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I. 실문 (1)

1. 침해금리청구 위와 및 징벌금리

① 상권권과 같은 자신의 상권으로 침해한 자에게 침해금리 청구 가능한 바(조도(예리), ② 甲 상권인 규약하게 권속 하여, 그은 甲 상권과 동등한 상권은 자정상용 '라울'에 사용 출제, ③ 그외 타울 권에 행위가 상권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2. 상권적 사용 위

① 형식적으론 조도로 함 1호 권속해 해당하여, ② 실질적으론 상권의 기능이 반치되도록 사용하는 것은 위법한다.

3. 丙에게 진대한 라울의 상권적 사용 여부(과거)

(1) 상권적 사용 판단방법(위1제)

상권과 상권으로 사용하든 아니든 자정상용과의 신제, 출제상용의 신제, 등록상용의 주제-제명 정도, 사용의 **의도·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제 지배자에게서 식별권위로서 인식되든 아니든을 살펴봐야 한다.

(2) 사안

① 그은 "BARREL 바렐"을 준사한 '이 신제 라울'에 대해 **부**

기득 상표 실전GS A 답안 일부

앞선 동차 시절 답안과 다르게 글씨를 가능한 날려쓰지 않으려고 했고, 대목차 사이에 엔터를 넣어 가독성과 분량을 함께 충족시켰습니다. 답안지를 쓰다 보면 4번 문제로 갈수록 글씨가 못나지기 쉬운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1번, 3번 문제의 첫 페이지는 글씨를 신경써서 적는 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 삽입은 꼼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처럼 답안지의 양을 늘리기 어려운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저는 시험장에서도 엔터를 포함하여 1권을 넘게 쓰지 않았습니다.

【사용한 펜】

펜텔 에너겔 0.7mm 사용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심을 갈아 끼우는 펜이 아닌 뚜껑을 여닫는 일회용 펜을 사용했습니다. 심을 갈아 끼우는 방식의 펜은 쓸 때 심이 조금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일회용 에너겔은 용량이 더 넉넉하고 심이 흔들리지 않아 안정적으로 글씨를 쓸 수 있었습니다.

【답안작성 방법】

별도로 목차를 잡지 않고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처음 읽을 때 제대로 읽고 누락하는 논점이 없도록 연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나 실제 시험에서 목차를 잡지 않더라도, 문제를 읽고 빠른 시간 내에 목차를 현출하는 스테디를 추천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논점을 누락하는 실수를 어떻게 해야 방지할 수 있는지 자기만의 방법을 갖추게 됩니다.

【과목별 전략】

민사소송법의 경우

민사소송법이 많이 약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아는 거라도 잘 쓰자'는 마인드로 **주논점을 정확하게**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62기 시험에서 3번 문제가 많이 무너져 4번까지 점수가 낮았지만, 1, 2번에서 알고 있는 논점들의 학설, 판례, 검토를 배운 대로 정확하게 써서 허방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의 경우

각 소설문의 **점수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최신판례와 같이 아는 판례가 나왔다 해서 점수에 비해 과하게 쓰기 시작하는 순간 시간 조절이 어려워지고 페이스가 무너집니다. 이 부분은 박형준 변리사님께서도 늘 강조해 주셔서 실제 시험에서도 그 부분을 유념하며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상표법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차를 잡지 않고 답안을 썼기 때문에, **처음 문제를 읽을 때 트리거, 사안포섭에 필요한 문구, 날짜, 주체 등을 제대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경훈 변리사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했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꼭 하나씩 놓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사안포섭에 있어 필요한 문구들이 지문에 대부분 숨어있기에 이를 캐치하여 답안에 녹이는 연습을 하시면 상표는 금방 점수가 오를 거라 믿습니다.

-기타-

【시간 관리】

1차 시험을 준비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상시간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차 시험보다도 더 루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득 GS 시즌에 들어서고서는 기상&공부시간 공유 스테디도 참여했습니다.

【체력/멘탈 관리】

체력 관리는 따로 안 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규칙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멘탈 관리는 기득에 들어서며 스테디와 강의실에서 알게 된 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듯합니다. 덕분에 학원에 GS 쓰러 가는 시간이 마냥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평일에 혼자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에는 당시 아직 준비 중이었던 친구와 만나 카공을 하고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더 힘이 나는 사람이라 이런 방식으로 멘탈을 다잡았습니다.

【공부 장소】

기득 초반까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독서실을 쓰다가, 이후 집 근처의 스테디카페에서 공부했습니다.

【스터디】

동차 불합 이후 저를 강제할 힘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책임감이 특히 강해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스터디를 함으로써 **‘하루 공부의 최저점’이라는 방어선**을 만들었습니다. 스터디 내용과 방식은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개는 혼자서 게을리하기 쉬운 기출, 사례 목차 잡기를 주로 했습니다.

【휴식】

월요일은 통째로 쉬었습니다. 주말GS에서 얻은 피로감을 회복하고 싶기도 했고, 반나절이나 저녁 전까지 쉬는 등으로 나누면 계속 이후 할 일을 떠올리며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월요일은 아예 걱정 없이 쉬었던 것 같습니다.

【월비스에서 과목별로 추천하고 싶은 강의/교재가 있다면】

제가 월비스에서 수강한 강의 모두 좋았지만, 기득 분들에게는 **박형준 변리사님과 한경훈 변리사님의 도약GS**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월 실전GS에 앞서 잃었던 감을 깨우기에 좋고, 무엇보다 중요 판례들을 한 차례 외우고 답안작성을 해보는 경험이 실전GS, 나아가 실제 시험에서까지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차 상표 과목의 고득점 비결】

비결이라고 할 만큼 거창한 건 없으나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62기 시험의 상표 과목의 경우 1번 문제에 광천김 판례를 내서 응시자들을 많이 당황시켰는데요, 모든 과목에 통용되는 이야기지만 시험장에서 이런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시험장에서 1번 문제를 보고 당혹스럽긴 했으나 동시에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나만 당황한 게 아닐 거고, 이때 침착하게 대응하면 내가 더 앞서나갈 수 있다’**고 마인드컨트롤을 하며 낭비하는 시간 없이 차분하게 답안지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상표 시험의 경우 지문이 길어지면 어느 부분이 트리거인지 읽어놓고도 다시 헛갈릴 수 있는데, **표시를 눈에 띄게 정확하게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면 시간 관리가 보다 수월해집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해야 사안포섭도 풍부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사료됩니다.

마치며

적고 나니 생각보다 별거 없는 것 같아 송구스러워집니다.

제가 동차 때와 달랐던 것은 1년이라는 기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매번 하던 생각이 있습니다. **‘꼭 합격해서 과거의 나를 자책하는 대신,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어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요. 이 글을 보는 여러분도 과거의 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할 날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글을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지원 드림